

나주혁신도시 10명중 8명 '나홀로 이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직원 가족동반 17.3% 불과 교육·생활·문화·교통 등 인프라 부족에 기피

지난해부터 수도권 140여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20% 가량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 교육과 생활, 문화, 교통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5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 총 1409명의 임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는 전체의 17.3%인 2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와 전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 수급료 지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등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으나 얼마나 효

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일부 이전 공공기관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지만 가족동반 이주율이 10%가 안 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울산혁신도시로 이주한 고용노동부의 기혼자 직원 34명 중 1명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부산)는 85명 중 5명, 대한적십자사(원주)는 121명 중 6명 등으로 저조하다.

부산혁신도시 역시 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지만 전체 325명 중 18.4%인 60명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다만 자연환경 등 정주여건과 교통비용 등을 고려한 탓인지 국립기상연구소 등 2개 기관이 이전한 제주혁신도시는 전체 19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동반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

께 이주하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보다 교육·생활·문화·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산계층인 이들 직원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혁신도시 안에 보육시설이나 가정 '혁신 중·고교' 설립이 지연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영화관, 쇼핑센터, 학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다른 혁신도시보다 신속하게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 정주시설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나 정작 대형 유통센터 등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주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7952여 세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은 지난 2월 602세대가 첫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총 1226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학교는 지난 3월 4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18학급)가 개교했고 향후 9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공기반시설만 갖추었을 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의료·유통 등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과 임직원 및 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활성화 회의'에서도 편의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혁신도시지원단 한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특히 교육여건에 가장 신경을 쓰며,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족이주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올해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내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1만7952세대를 포함해 총 5만여명이 입주한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전남도 사계절 전지훈련지 각광

7월 한달 1만7천여명 찾아 지역 경제효과 88억 달해

전남도가 사계절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각광받으면서 여름철 국내외 전지훈련팀이 잇따라 찾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전남도를 찾은 하계 전지훈련팀은 472개 팀 1만7470명(연인원 8만6992명)이며, 이에 대한 경제효과는 88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추세라면 하계 전지훈련 기간 9월까지 연인원 16만명 유치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각 시군에서 각종 대회와 스포츠 리그 등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위 유치 시·군은 나주, 여수, 목포, 순천, 강진, 해남, 진도 순이다. 종목별로는 야구, 축구, 육상 순으로 이들 3개 종목이 전체 종목의 66%(5만7000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전남·전북·광주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으

며 팀별로는 초·중·고교 팀이 67%(5만8000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프로·실업팀), 대학 순이었다.

특히 일반 유통경제대학 유에는 우찌야마 감독이 이끄는 일본 럭비팀 180명이 최근 15일 동안 강진에서 전지훈련을 하자 이 소식을 듣고 국내 상무체육대 및 각종 실업팀 등 국내 유수 럭비선수 350명이 리그전을 벌이기 위해 강진을 찾는 등 연관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그동안 각종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동계전지훈련은 물론 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생명의 땅 전남'이 명실공히 동계·하계 전지훈련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인프라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을 하계 전지훈련 중점 유치기간으로 정하고 40종목, 1200팀, 2만4000명(연인원 16만명) 유치를 목표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에볼라 정보가 궁금하다면?

WHO보다 빠른 '헬스맵' 눈길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느 국가에 얼마나 퍼졌는지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보다도 먼저 방문해야 할 웹사이트가 있다.

에볼라 발병과 사망자, 위치 등 각종 정보를 지도 형태로 한눈에 보여주는 '헬스맵'(healthmap.org) 웹사이트다.

최근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950명을 넘기면서 보스턴어린이병원 연구진이 만든 헬스맵 웹사이트를 찾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미국 보스턴글로브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스턴어린이병원 연구진과 역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45명은 2006년 수만개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와 지역뉴스, 의료진 네트워크에서 질병발생 정보를 긁어 모은 뒤 믿음직한 내용을 선별,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이다.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질병 발생정보가 올라오는 속도는 WHO보다도 빠르다.

실제로 헬스맵은 지난 3월 14일 기니에서 '기이한 출혈열'로 8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WHO의 에볼라 발병 공식 발표는 이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같은 달 23일이었다.

헬스맵 공동창립자인 존 브라운스타인은 "언론 보도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항상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HO, 에볼라 비상사태 선언

마거릿 쉐인 WHO 사무총장(가운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긴급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에볼라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볼라 의심환자 입국 가정 모의훈련

정부, 대응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볼라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 전국 모든 검역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입국을 가정할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문형표 장관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 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장들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

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회의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 발견에 대비, 모든 검역소에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으로부터 의심 증상자가 입국(직접 또는 경유)할 경우 실제로 어떻게 검역하고 어디로 옮겨 격리할지 등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보고 허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의 '에볼라 비상사태' 선언 직후 정부가 발표한 에볼라 검역 강화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직항편(에티오피아·케냐 출발) 입국자와 서아프리카 4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한국인을 포함,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공항·항만 입국 단계에서 검역신고서 확인과 발열 검사 등을 거치고 입국 후에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일본에서 임상시험 중인 에볼라 치료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병세-리수용 남북외교수장 미안마 ARF서 조우

유익미한 대화는 없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만찬에서 만났으나 인사 이상의 유의미한 대화는 없었다.

윤 장관은 ARF 의장국인 미얀마 주최로 9일 저녁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웃는 표정으로 악수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은 환영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 미얀마 전통복장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우'했다.

윤 장관이 리 외무상 쪽으로 몇 걸을 다가서 악수하는 형식이었었다.

윤 장관은 리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며 "만나서 반갑다"면서 "요즘 외국방문 등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만찬 좌석으로 돌아가면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자리는 만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앞서 리수용 외무상을 수행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남북이 이번에 접촉하느냐'는 이날 남북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만나서 얘기할 일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ARF에서 남북 외교수장간 만남은 다자회의 석상에 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만찬장에서 리 외무상은 몽골, 베트남, 라오스 외교장관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으며 파키스탄 외교장관과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는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4면 발행...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칼(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정
지멘스 상무점
약명빌딩5층 501호
동행(보청기)실
아바폴드지점

대상 Wellife
www.Wellife.co.kr

뉴케어와 함께 성장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대상웰라이프는 환자 및 노약자의 영양상태 개선 및 빠른 회복을 도와드리는데 특수의료용도식품인 '뉴케어'를 병원에 공급해온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리점주가 되시면 마케팅 전략에 따른 영업교육 및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드리며, 운영 관리를 위한 자체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뉴케어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대리점 모집 공고

모집부분	병원유통 대리점	이메일접수	muwhan@daesang.com / 010-6336-1192 (채용담당자)
영업지역	광주/전남/전북 및 대전/충북/충남	우편접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70 대상빌딩 5층 웰라이프 뉴트리넌팀 앞
지원요건	· 해당지역의 병원영업 가능하신분 · 제약사 혹은 의약품도매업, 병원 영업경력자 우대 · 제품 영업에 전력을 기울이실 수 있는 분(우선대상)	채용기한	채용시까지
영업지역	이력서, 소개서(경력증명서, 사업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면담	서류검토 후 개별통보 예정
		문의사항	· [광주/전남/전북] 여인형 대리 : 010-8438-8044 / 062-943-9531 · [대전/충북/충남] 김형실 과장 : 010-3112-2110 / 042-626-9966

대상주식회사 웰라이프사업본부